

# 함평군 '지역수요 맞춤지원'

## 공모사업 선정…20억 원 확보

### 나비·국화 등 특화자원 활용 소득 창출 기대

함평군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에서 '나비마을 만들기' 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비 2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지역주민이 직접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저예산 생활밀접사업을 통해 새로운 부기기지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드는 대규모 SOC사업 대신 지역기반시설과 문화 콘텐츠를 융·복합하는 주민주도방식으로 추진·운영된다.

군은 올해 지역특화자원(나비·

국화)을 활용한 '나비마을 만들기' 사업을 신청, 단계별 평가(서면→현장→발표)를 거쳐 지난 2일 최종 선정돼 국비 20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6억 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을 통해 군은 기존 유리온실을 활용한 국회분제 재배·나비사육 등 소득사업을 추진하고 함평 수변 탐방로 조성, 농가시나무 탐방로 조성(전연기념물 110호) 등 경관휴식공간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사업신청 당시 전문가 자문 및 지역주민 의견을 대다수 반영한 만큼 기준 함평문화원과 인근 유류

함평=김광춘 기자

### 나주시, 하계 전지훈련지 열기 '후끈'

8월 중순까지 펜싱·육상·씨름·사격 등 훈련 연이어



나주시가 하계 전지훈련을 위해 모여든 스포츠 선수들의 열기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나주시는 비수기 지역경제 활성

화를 위해 하계 전지훈련 유치 활동을 선제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난 달 25일 중국 펜싱팀을 시작으로 육상, 씨름, 사격 등 4개 종목을 유효

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중국 펜싱팀은 지난 2017년부터 꾸준한 진행한 마케팅 수법사례로 꼽힌다. 중국 최고 기량을 겸비한 상해팀, 난징팀이 나주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중국 선수단은 국내 17개 팀과의 기량 향상을 위한 친선경기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이달 중순부터 8월 초까지 육상 종·장거리 국가대표 후보선수 및 전국 종·고교 우수 10개 팀, 200여명이 전지훈련을 앞두고 있다.

씨름은 구례 군청을 비롯한 10개 팀이 이달 중순부터 10일 간, 사격은 국가대표 후보팀 및 종·고교 30팀, 300명이 8월 중순까지 전지훈련에 임한다.

시는 선수 수송 차량 스포트라이트 개최, 참여 지도자 인센티브 전지훈련 팀 추여 민들기 행사 등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 전지훈련팀을 맞이하고 있다.

### 영광군,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참여기업 추가 모집

영광군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위해 추진 중인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1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마을로 프로젝트는 전남형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지역 내 마을단위

사업장에 청년활동가(만18세~39세)를 배치하여 청년들의 취업난 해소와 마을의 활성화를 돋기 위해 국비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참여자격은 영광군 관내 소재 마을사업장 중 마을에 기반을 두고 경제 및 사회·문화 활동을 영

위하고 있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이며 산업·농공단지 내 지역의 대표 농·수·축산물, 특산품 등을 활용하는 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영광=서희관 기자

### 장성군, 치매안심마을 현판식 가져

권역별 4개소 지정…교육·원예치료 등 진행



장성군이 지난 2일 진원면 고산 마을회관에서 '제1호 치매안심마을'을 가졌다.

'치매안심마을'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한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군은 재가 치매환자의 비율과 지역주민의 관심도가 높은 마을을 읍·면별로 추천받아 각 권역별 1개소씩 총 4개 마을▲장성을 유탄마을 ▲진원면 고산마을 ▲삼서면 화해미을 ▲복일면 신흥마을)을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했다.

군은 지난 5월부터 권역별 치매안심마을 주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여 사업 취지를 알려왔다. 또한 치매인식개선, 교육, 보탈공예, 미술요법, 원예치료 등 다양한 치매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담양 해동문화예술촌, 지역문화 대표브랜드 '최우수상'

담양군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는 2019년도 지역문화 대표브랜드 공모전에서 '문화를 빛다' 담양 해동문화예술촌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로 8회를 맞은 지역문화대표 브랜드 공모를 통해 지역의 특화된 지역문화 발전 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지역과 도시 단위의 우수 사업 중 문화브랜드로서의 가치가 높은 사업들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전국 21개의 지역체 사업 가

운데 총 3개의 대표브랜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담양 해동문화예술촌은 1960년 대 전통 주조방식으로 막걸리를 생산하다 2010년 폐업 이후 방치 되던 해동주조장을 2016년부터 부지 매입과 문화재생 사업을 통해 재탄생시킨 공간으로, 군민과 관광객이 예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문화예술 거점으로 복원시켰다.

또한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20여 개 5,000여 명이 참여한 파이럿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민과 방문

객의 문화 갈증 해소와 지역예술 인의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군민의 문화적 욕구에 부응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동문화예술촌은 지난 6월 1일 전시 '도시 리듬과 예술적 행동'과 함께 개관하고 아카이브 전시관 등 미술전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9월부터 공간이 가진 특징을 반영한 도기갤러리, 현대예술 전시장, 아트숍, 어린이놀이도서관 등 체험공간을 갖추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담양=박종영 기자

### 화순군, 아르바이트 대학생 부서 배치

화순군이 29일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설명회를 열어 근무 요령 등을 안내하고 대학생들을 각 업무 부서에 배치했다.

설명회에는 하계 아르바이트 공개 모집에 합격한 대학생 60명과 일하게 될 부서의 담당자 25명이 참석했다.

군은 학생들에게 군정 현황과 비전을 소개하고 근무 요령, 주의 사항 등을 당부했다. 각 부서 담당자에게는 근무기록부 작성과 결재 방법을 안내하고 근무자들을 친절하고 꼼꼼하게 지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르바이트 근무자들은 군청 각 부서와 5개 읍·면에 배치돼 2일부터 8월 12일까지 근무하게 된다. 근무 기간 각 부서에 맞는 행정 업무 처리 절차를 배우고 현장 업무를 보조하며 전산·도서 정리 등의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기획감사실로 발령받은 전진우 학생(20·남)은 "어렸을 때부터 지나니 기막힌 했던 화순군청에 근무하게 돼 신기하기도 하고 많이 설렌다"며 "근무하는 동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많은 것을 배워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대학생들에게는 등록금 부담을 덜고 행정 업무와 공직 사회를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높은 경쟁률을 끌고 선발된 만큼 근무하는 동안 여러 경험과 지식을 쌓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달 여름방학 기간 아르바이트 활동을 할 대학생 60명을 공개 모집했다. 자격 조건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화순군에 주소를 둔 대학교 재학생으로, 가구 소득 수준, 가구원 수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환산해 공정하게 선발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 장흥군, 실시간 대기오염 상황 안내 전광판 설치

한국환경공단 서버 연결

장흥군은 실시간으로 대기오염 확인할 수 있는 미세먼지 일립 전광판을 설치했다고 3일 전했다.

전광판은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장흥군청 앞과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에 설치됐다.

군은 날로 심해지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전광판을 세웠다.

주민들은 미세먼지 전광판을 확인을 통해 외부활동을 자제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적절한 건강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전광판은 한국환경공단의 서버와 연결돼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 농도, 온도, 습도 등 11종의 대기오염정보를 제공한다.

